

의류관리기의 역사 써온 LG 트롬 스타일러

LG전자가 2011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의류관리기 ‘트롬 스타일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LG전자는 9년여 동안 연구개발 끝에 차별화된 생활가전 기술을 집약해 세상에 없던 의류관리기라는 새로운 가전을 만들어냈다.

이 제품의 글로벌 특허는 220개에 달한다. 국내에 이어 2016년부터는 해외 진출도 본격화했다.

최근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에 출시했다.



LG TROMM 스타일러

건강까지 지켜주는 진짜 스타일러

LG 트롬 스타일러는 집에서 간편하게 옷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받은 트루스팀 기술을 갖춘 대표적인 스팀 가전으로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드는 트루스팀은 탈취와 살균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이 제품은 의류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바이러스도 99.99% 이상 제거한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험결과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바이러스코스는 인플루엔자 A(H3N2), 아데노(ICHV), 헤르페스(IBRV), 코로나(PEDV) 등의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없앴다.[코로나(PEDV)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최근의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시험 결과가 아님.]

또한, 특허 받은 무빙행어(Moving Hanger)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무빙행어 플러스는 옷을 1분에 최대 200회 털어주며 바람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미세먼지를 골고루 없애주고 생활 구김을 줄여준다. 등록된 특허만 22건이다.

옷걸이 거치대는 길이가 긴 옷을 감안해 이전 모델 대비 최대 2.5cm 높였다. 또 기존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옷을 걸었던 방식은 옆에서 안쪽 방향으로 걸 수 있게 바뀌 무거운 옷을 걸 때도 편리하다.

업그레이드된 바지 관리기와 스마트 기능

LG 트롬 스타일러 가운데 블랙에디션2와 오브제컬렉션 모델의 바지 관리기에는 바지 필름이 새롭게 추가됐다. 바지 필름을 바지 사이에 넣어주면 필름이 바지 안쪽까지 누르면서 바지선을 잡아준다.

특히 받은 바지 관리기가 바지를 당기지 않고 직접 꺾 눌러줘 생활 주름은 완화시키고 바지선을 편리하게 관리해준다.

트롬 건조기에서와 같이 인버터 히트펌프(Inverter Heat Pump)를 이용한 저온제습방식은 옷감 손상을 줄인다. 제습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최대 10리터까지 제습할 수 있어 스타일러가 설치된 드레스룸 등을 산뜻하게 한다. 또한, 의류를 스타일러에서 바로 꺼내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옵션을 이용해 옷을 최대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품을 무선인터넷(Wi-Fi)과 연결해 LG 씽큐 앱에 등록하면 다운로드 코스, 원격제어,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진단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주)
사장

권봉석

의류관리기의 대명사인 LG 트롬 스타일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수상은 LG전자가 트롬 스타일러를 앞세워 의류관리기라는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고객들로부터 원조 제품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